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수 박순철

‘화순 국화향연’ 전남도 대표 우수축제 선정 쾌거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바지



‘화순 국화향연’이 화순군 축제 최초로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 국화향연’은 지난 해 12월 초 전남도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됐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 선정 결과에 따라 전남도 대표 ‘우수’ 축제로 최종 결정되어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

게 됐다.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018 화순 국화향연’에 관광객 52만여 명이 찾아 화순 대표 축제로서 위상을 굳혔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화향연 축제는 생산 유발효과 405억 원, 부가가치 171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난 국화향연은 관람객의 호평이 끊이지 않은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축제는 군민의 협조와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며 “2018년 축제 때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 올해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축제로, 다시 찾고 싶은 전남 대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완도군, 내년까지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완도군은 재난·재해 및 AI, 구 지역 등이 발생할 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총 사업비 18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22개 마을에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완도군은 245개의 마을 중 권역별 공모 사업을 통해 21개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구축된 마을도 연계하여 일제 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1차 년도 사업비 11억 원과 2차 년도에는 7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 구축되어 있는 곳은 전남도 재난문자 방송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재난 마을방송시스템은 원격지에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실시간으로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 마을회관에 구축된 옥외 스피커를 통해 소식을 알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마을과 떨어진 자연 마을(외반 마을)에도 무선 주파수를 통하여 방송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마을방송 운영 지역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 마을방송시스템이 구축되면 흉수나 태풍, 지진, 산불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 전파나 대피 안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구례군, 2019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접수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20개사업(총사업비 11억 6천2백만원)에 대해서 7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식량작물 분야에 밀 용도별 브랜드단지 연계 품질 향상 시범 등 2개사업 2개소 ▲원에 작물 분야에 과수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과 시설없이 염류정해 방지 기술보급 시범 등 7개사업 11개소

▲인력육성 분야에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등 3개사업 8개소 ▲생활 지원 분야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등 3개사업 3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5개사업 56개소 등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으로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

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농가에 파급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및 마을 이장까지 배부한 시범사업 안내 책을 참고하여 희망농가는 오는 2월 1일까지 읍면농업인상담소를 방문, 사업별 세부내용과 추진계획을 상담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농한기’ 귀농·귀촌인 등 농업인 위한 도예교실 운영



영암도기박물관

영암도기박물관은 농한기를 맞아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농업인을 위한 기초도에 강좌인 생활도예교실을 신규·개설 운영한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

는 생활도예교실은 귀농·귀촌인과 같은 농업인 등 농한기에 체험이 가능한 희망자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초적인 도자성형과 장식기법을 익히고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2008년부터 10년간 생활도예교실을 운영해오면서 많은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농한기 생활도예교실을 통해 농번기 등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문화체험에 소외되기 쉬운 지역민의 체험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 된다.

올해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생활도예교실은 1~월, 3~5월, 9~11월 기간 동안 총3회 운영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각각 1, 2, 8월에 모집한다. 영암도기박물관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도예교실은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면서 도예동아리 및 농한기 생활도예교실 등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예강좌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일상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삶을 가꾸어 가는데 지역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박물관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한국관광 100선 ‘담양 죽녹원’ 선정

담양 죽녹원이 ‘한국관광 100선(2019~2020)’에 3회 연속 이름을 올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높은 인기와 명성을 재차 증명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9천여 명이 찾은 담양 죽녹원은 마음까지 맑아지는 청량감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대숲 산책로와 함께 시기문화촌, 한옥숙박, 죽로차 다도체험 및 시서화 풍류체험, 장인각, 봉황루 전망대, 추월당 한옥카페, 이이남아트센터 등이 조

성돼 쉼터 기능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해왔다. 또한, 죽녹원은 3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빛나는 ‘담양대나무축제’가 열리는 무대이기도 하며 ‘2017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된 ‘담양음식테마거리’와 조화를 이뤄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방문객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2019~2020)’ 선정 평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예비 후보 2배수 발표로 시작해 전문가 그룹(학계, 여행업계, 여행기자·작가, 여행 동호회)으로 구성된 정성평가와 이동통신사, 내

비게이션, SNS 등의 정량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 관광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내국인은 물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자를 비롯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필수 관광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는 2019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 자격과 홍보 팸투어단 방문 등 지원, 한국관광 100선 지도와 기념품이 전국의 관광안내소에 배포된다. 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서구식(korean.visitkorea.or.kr)에 소개되며, 외국어로도 번역해 전 세계에 홍보한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시, 전통시장 활성화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해결

지nahme 서시장·서시장주변시장 중기부 공모 연속 선정



여수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숙제를 시장민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2개 전통시장이 연속 선정되고 특성화시장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시장경쟁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이다. 우선 시는 이달 중 여수전통서시

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년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시장에 서울 광장시장과 비슷한 형태의 먹거리공장을 만드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예비 지원금 포함 8억6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공연 등 토요 이벤트 행사와 상인동아리 운영도 지원했다. 노점 상인들에게는 매대 28대를 설치·지원해 시장환경도 개선했다. 오는 3월부터는 2년차 사업으로 연동천변 시장 아케이드 LED조명 설치 등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과 관광

지 연계 이벤트 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에는 역시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서시장 주변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예비 포함 총 5억2000만 원을 투입해 서시장 주변시장에 ‘갯네프스트리트(작발·곶감 특화거리)’를 만들었다. 특화거리 조성과 함께 아케이드 시설, 간판 정비, 점포별 매장 정비 등을 통해 시장 환경도 개선되며 점포별 매출액이 3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시장만의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점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기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